

제27회, 제28회, 제29회
《연변문학》

윤동주문학상

수상작품집



연변인민출판사

제27회, 제28회, 제29회

《연변문학》윤동주문학상
수상작품집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金仁德

责任校对: 金红花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延边文学》尹东柱文学奖获奖作品集 : 朝鲜文 / 赵一男主编. — 延吉 : 延边人民出版社, 2009. 11

ISBN 978-7-5449-0774-3

I. ①延… II. ①赵… III. ①文学-作品综合集-延边朝鲜族自治州-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18.34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215917号

《延边文学》尹东柱文学奖获奖作品集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960×640 1/16 印张: 23 字数: 368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774-3 (民文)

版次: 2009年12月第1版

2009年12月第1次印刷

印数: 1-800册

定价: 28.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책머리에

《연변문학》 윤동주문학상을 관심하고 후원하는 모든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제27회, 제28회, 제29회 《연변문학》 윤동주문학상 수상작품집을 한데 묶어 출간하게 되었다. 1999년, 《연변문학》지의 문학상이 윤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이 바뀌은후부터 2005년 제26회까지 해마다 수상작품집을 출간하였는데 2006년 제27회부터 3회의 수상작품집은 펴내지 못하다가 오늘 그 소원을 풀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선족사회, 조선족문화에서 우리 조선족문학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큰것 같다. 저희 《연변문학》지 문학상의 경우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싶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80년도에 바로 저희 《연변문학》지의 문학상이 설치되었고 그때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흥분하였던가! 사실 그때의 문학은 문학만의 의미가 아니였고 문학상시상식도 문학상시상식만의 의미가 아니였던것이다. 그리고 그후 어렵지만 《연변문학》지도, 윤동주문학상도 사실 그렇게 오지 않았나싶다. 우리 문학에 정진하는분들에게, 윤동주문학상 수상자분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그리고 1999년부터 《연변문학》지의 문학상을 윤동주문학상으로 한것은 정말로 잘된 일이 아닌가싶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문화는 우선 민족문화로 구분되고 그리고 문화는 보통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윤동주시인의 문학정신은 우리 21세기를 위해서도 얼마나 귀중한 재산인가 생각해본다.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위한 가장 절절한 표현과 가장 적절한 방법, 이것이 바로 윤동주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것이 아닐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생활과 정서에 뿌리를 두고있으면서 또 21세기를 지향하는것이 아닌가! 윤동주시인의 고향에서 윤동주문학상에 도전하는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생각해본다.

그래서 지금 《연변문학》지를 꾸리는것도, 윤동주문학상을 운영하는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이 10년간 줄곧 저희 윤동주문학상을 후원해주시는 리윤기 박사님을 비롯한 한국 해외한민족연구소분들에게, 이번 수상작품집을 내게끔 배려해준 저희 연변인민출판사 지도부와 한국 재외동포재단에 감사사를 드린다. 그리고 다시한번 중국조선족문학을 하는 모든분들에게 문학의 정진과 함께 영광이 있기를 기대한다.

《연변문학》지 주필 조일남

2009년 10월 22일

차 례

제1부 2006년 제27회 《연변문학》운동주문학상 수상작품

1. 본상 수상작

소설부문 본상 수상작(단편소설)

익명신 최홍일 3

시부문 본상 수상작

초불엔 재가 없다(외 4수) 강효삼 41

수필부문 본상 수상작

발 김점순 47

2. 신인상 수상작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작(단편소설)

기러기문신 정형섭 53

시부문 신인상 수상작

한줄기 향기가 채국범 103

수필부문 신인상 수상작

흔들리는 미학	오경희 105
---------------	---------

평론부문 신인상 수상작

윤림호 소설의 기본모티브에 대하여	강 길 111
23자의 매력	최미성 129

3. 심사평

흔들리는 민족공동체와 바로서기의 미학	김호웅 137
----------------------------	---------

4. 수상소감

본상 수상자 수상소감

문학상엔 만족이 없다	강효삼 144
선택	김점순 147

신인상 수상자 수상소감

문학으로 특유정서를 느껴본다	정형섭 149
삶은 나더러 시인이 되라 했습니다	채국범 151
흔들렸던 그날의 나를 좋아하렵니다	오경희 152

제2부 2007년 제28회 《연변문학》운동주문학상 수상작품

1. 본상 수상작품

소설부문 본상 수상작(단편소설)

울부짖는 성	손룡호 157
--------------	---------

시부문 본상 수상작

말하는 이끼(외 1수) 김동진 187

수필부문 본상 수상작

일월의 빛 양은희 191

평론부문 본상 수상작

일상과 꿈 사이의 방황 장춘식 197

2. 신인상 수상작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작(단편소설)

개불 김금희 211

시부문 신인상 수상작

잔돈은 지갑을 만나면 늘 게면찍어한다(외 1수)
..... 리범수 221

수필부문 신인상 수상작

할미꽃 방 원 227

3. 심사평

민초의 고뇌와 울분 그리고 그 끈질긴 생명력
..... 김호웅 231

4. 수상소감

인정받은 아픔 손룡호 238

하늘을 우러러 내 마음 비춰본다	김동진	240
부끄러움으로 세상을 알며	양은희	242
수상소감	장춘식	244

신인상 수상자 수상소감

꿈을 위한 후회 없는 삶	김금희	245
할미꽃은 하냥 그렇게 피어있었다	방 원	248

제3부 2008년 제29회 《연변문학》운동주문학상 수상작품

1. 본상 수상작

소설부문 본상 수상작(단편소설)

장손	박옥남	253
----------	-----	-----

시부문 본상 수상작

나는 물이다 내게 무슨 상처라(외 1수)	한영남	279
------------------------------	-----	-----

수필부문 본상 수상작

남자의 집	류원무	283
-------------	-----	-----

2. 신인상 수상작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작(단편소설)

돼지고기, 여자 그리고 담배	구호준	291
-----------------------	-----	-----

시부문 신인상 수상작

엄마의 트랙에는 감자꽃이 하얗게 피었다(외 1수)	박경상 313
-----------------------------------	---------

수필부문 신인상 수상작

너자가 술에 취하고싶을 때	박애자 317
----------------------	---------

평론부문 신인상 수상작

2007년 《연변문학》의 자연소재의 시작품에 대하여	리홍연 323
------------------------------------	---------

3. 심사평

2008년 제29회 《연변문학》윤동주문학상 심사평	조성일 337
-----------------------------------	---------

4. 수상소감

본상 수상자 수상소감

수상소감	박옥남 345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영남 346
영원한 인생의 본보기	류서연 348

신인상 수상자 수상소감

가을 오는 소리를 노크하면서	구호준 351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박경상 352
작은 소망 하나	박애자 354
삶의 조각들을 끈끈히 이어나갈 글을 위하여	리홍연 357

제 1 부

2006년 제27회
《연변문학》윤동주문학상
수상작품



익명신

소설부문 본상 수상작(단편소설)



최홍일

1954년생.

소설가, 전국작가협회 회원.

대하소설 《눈물젖은 두만강》 출간.



술은 좋은 물건입니까? 다들 적당히 마시면 술보다 좋은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 하긴 그럴테지요. 혈액순환을 돕는다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술의 좋은 점은 이루 다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엔 따끈한 한잔이 얼어든 몸을 덥혀줍니다. 기쁠 때의 한잔은 즐거운 기분을 흐드러지게 해주고 번뇌의 한잔은 괴로움을 달래여줍니다. 초면의 낯선 사람도 술 한잔 나누고나면 오랜 친구 처럼 되어버리구요. 가까운 친구들과 술잔을 들고 담소하면서 세상사를 지껄여본다면 그것 또한 천륜지락이 아닐까요? 하지만 술이란 놈은 괴물이랍니다. 술이 과하면 사람이 못하는것이 없다고요. 신사를 열간이로 만드는데 하면 줄장부를 호남아로 둔갑시키기도 한답니다. 취중에 망발을 부리거나 주먹을 내휘두르는 일은 비밀비재, 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과하면 토끼담을 가진 사람도 호랑이의 위용을 부릴수 있다는 말이지요. 리선생이 바로 그런 용맹을 부리고말았습니다.

리선생 말입니까? 퇴직교원이랍니다. 6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인데 70은 훨씬 넘어보입니다. 겉늬였지요. 근육이 느슨하게 풀린 얼굴에 주름도 많이 갔습니다. 허리도 약간 구부정하구요. 그래도 한때는 내노라 하던 량반입니다. 어문강의를 잘해서 재직 당시엔 전 교육계통내에 평판이 짜했습니다. 특히 장기는 작문지도였어요. 그 본인도 문학잡지에 수필 같은 글이 가담가담 실리기도 하고 상까지 받은적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이 너무 소심한게 탈입니다. 담이 작고 조심성 많기로 다람쥐도 자리를 내야 할 사람입니다. 현대 그런 사람이 취중에 도깨비짓을 하고말았습니다.

웬 술을 그렇게 퍼마셨는가구요. 죄다 장교장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생일이라고 산 술이었는데 열을 올리며 2차, 3차로 잡아 끌었으니까요. 술은 셋이서 마셨습니다. 장교장 말고도 또 오선생,

두 량반 다 리선생과 한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퇴직을 한 동료들입니다. 오선생과는 전부터 가까운 사이고 장교장하고는 재직 당시에는 별로 그렇다 할 친분이 없었는데 퇴직후부터 래왕이 잦아지면서 친숙해졌구요. 장교장은 미국에 있는 아들놈이 생일 쇠라고 500달러를 부쳐보내왔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4성급호텔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지도자질하던 사람답게 장교장은 통이 크게 놀았습니다. 자라탕에 송이버섯요리가 오르더니 광어회가 뒤따르고 또 비둘기구이가 곁들여졌습니다. 술은 “수정방”을 마시었고 술자리가 꺾한 뒤에는 우리 늙은이들이라고 향수할줄 모른다더니 장교장이 호기를 뿜으면서 그들을 노래방으로 잡아끌었습니다.

리선생은 노래방이 처음이었습니다. 난 그런텐 안 가. 노래할 줄도 모르구. 안 간다니까. 고개를 내저으면서 노래방은 죽어도 싫다는걸 장교장과 오선생이 겨우 잡아끌었지요. 60 넘은 량반들이 노래방을 간다니까 주책머리없다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웬걸요, 세월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무수출의 덕을 입어 소비도시로 급부상하고있는 이 자그마한 도회지에선 노래방이 인제 더는 젊은이들의 락원만이 아니랍니다. 50대는 물론 60대의 년장자들도 로쇠한 나비마냥 어설픈 날개를 퍼덕이면서 이 락원으로 날아들고있습니다. 그럴법도 한 일이죠. 한국과는 달리 변종된 이 도시의 노래방은 노래만 부르는게 아니라 술 마시고 아가씨 껴안고 춤추고 별의별 짓을 다할수 있으니까요. 헛데 말입니다. 과소비에 열중하고 향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있는 이 도시는, 한국을 통해 유흥문화가 놀라운 속도로 수입되고있는 이 도시는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글썄 인구가 3, 40만 되는 도시에 노래방이 백을 넘기고 다방은 수백이라고 하니 기적이라 할지 기형이라 할지 그것이 이 도시의 독특한 풍경으로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선

생에게는 그 풍경이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달 로임이 천원을 좀 넘는 낮은 수입으로는 엄두를 못 낼 일이지만 돈이 있다 해도 정녕 그가 바라는 풍경은 아닐겁니다.

리선생은 시장바닥에 내놓은 촌닭마냥 어리둥절했습니다. 눈앞을 부셔오는 노래방이 서먹서먹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껌벽 껌벽하며 돌아가는 형광등빛이 그렇고 반라체의 미녀들이 란무하는 대형형광막도 그렇고 또 허리로 감겨드는 아가씨의 매끄러운 팔까지 모든것이 서먹서먹하고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교장과 오선생은 묘령의 아가씨를 하나씩 껴안고 열을 올리는 판인데 이 뼈꾸기는 꾸어온 보리자루마냥 한구석에 죽치고 앉아 애꿎은 담배만 푹푹 태웠답니다. 그 정도라면 또 괜찮지요. 옆의 아가씨가 사뿐 다가앉으면서 맥주를 따르자 얼굴이 지지벌개가지고 비실비실 물러나 앉으니 그런 야단이 없었습니다. 그 못난 꼴을 보고 장교장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만 실소를 하면서

“저 량반 약이 없다니까.”

“이보라구, 자네 판을 다 깰 잡도린가. 자네 정 그러면 우리도 놀 재미가 없어.”

오선생도 실실 웃으며 시까슬러주었습니다.

장교장은 안되겠다싶어 손짓으로 리선생옆의 아가씨를 불러갔습니다.

“저 량반 워낙 골방샌님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노래 부르게 하구 춤추게만 한다면 팁은 곱으로 줄거야.”

“알았어요.”

아가씨는 얼굴에 복사꽃을 활짝 피우면서 포르르 리선생옆에 가 앉더니 다시 잔을 권합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처럼 짐작은분 좋아해요. 그치만 놀러 와

선 화끈하게 즐겨야죠.”

손님 다루는데 짱인 아가씨가 새물새물 웃으면서 까만 포도알을 집어 리선생의 입에 넣어줍니다.

“너무 점잖게 굴면 날 박대하는거라구요. 아무래두 마음에 안 드는가보죠. 다른 아가씨 바꿔드릴까요?”

아가씨가 우회공격을 들이대자 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아니요!”

“자, 그럼 한잔 하고 춤을 춰요.”

리선생도 철석간장사내는 아닌지라 살살 눈웃음치며 들이대는 그 아가씨의 지청구에는 당해내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권하는 술을 곱다라니 받아마시였고 또 아가씨의 손에 끌리어 자리에서 일어나고야말았지요. 그러나 엉거주춤한 그 꼴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꺼비가 황소개구리로 둔갑을 한건지 아니면 구렁이가 룡으로 변신하여 승천을 한건지 아주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었습니다. 아가씨한테 끌리어 어설픔게 돌아가는듯하던 이 량반이 두어곡을 추고나자 제법 블루스를 멋들어지게 춰나갔으니깐요. 장교장과 오선생이 입을 딱 벌리는데 점점 숙련된 동작과 우아한 자세로 이어지면서 노래방의 공간이 좁다하게 종횡무진을 하니 무용수가 울고 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장과 오선생이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리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더욱 놀란 사람은 리선생 본인이었습니다. 경이와 희열이 분수처럼 솟구쳐오르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40여년만에 다시 추억보는 춤이었습니다. 그는 믿어지지 않았습다. 자신이 아직도 멋지게 춤을 출수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다. 아직도 그런 정서와 정열이 파랗게 살아있다는것이 믿어지